



**정혜엘리사벳**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주임신부: 김한모. 바오로 916-207-4806  
 본당부제: 김병준. 바오로 217-352-2487  
 본당부제: 김상돈. 도미닉 916-580-8519  
 사목회장: 송돈희. 요셉 916-201-9859  
 연령회장: 고원석. 바오로 916-813-4440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사무실: 916-368-9204 Fax: 916-368-8304

오늘의 말씀 | 제1독서 | 집회서 3:17-18.20.28-29 | 제2독서 | 히브리서 12:18-19.22-24 | 복음 | 루카 14:1.7-14

◎말씀 < “네가 높아질수록 자신을 더욱 낮추어라.” >

첫 본당신부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그곳은 불교연합회 회원들(법우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서 부활절이나 성탄절은 물론 성당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법우회 회원들과 회장님인신 법사님께서 방문도 하시고 축하 화분도 보내 주시면서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해 인근 지역까지 포함하는 대규모 ‘부처님 오신 날’ 행사에 이웃 종교의 지역대표 자격으로 초대를 받아 축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행사 시간보다 조금 일찍 사목회장단과 함께 행사장을 방문하여 여러 사찰의 주지스님들과 인사도 하고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지역 유지들과 정치인들이 수행원을 거느리고 보란 듯이 행사장을 찾았습니다. 그 때부터 눈치싸움, 자리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나중에보니 초대받지 않았는데도 얼굴을 알리기 위해 방문한 정치인들 까지 있어서 자리가 부족하여 자리싸움이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자리도 못잡고 이리저리 밀려다니며 서 있자 다행히 함께 간 교우들이 뒷줄에 한 자리를 맡아주셔서 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요식 행사가 시작되고 내빈들의 소개와 인사가 이어지고

축사가 시작되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천주교의 지역 대표로 참석한 제가 행사의 주빈으로 내빈 축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제 자리가 중간에 있어 나갈 수가 없어서 그냥 서서 다른 분들이 길을 터주기만을 기다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앞과 옆에 앉아있던 분들이 모두 일어나서 길을 터 주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모양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자 몇몇 정치인들께서 “신부님께서 제일 앞에 앉으셔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라고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자리는 있는다고 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주님께서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루카14.11)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자신을 들어 높이려 해도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리고 주님께서 높이주지 않는다면 결코 높아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스스로를 높이려고 자리싸움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하면서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네가 높아질수록 자신을 낮추어라. (집회3, 18)고 하십니다. 자신을 낮추면 낮출수록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 들어 올려주시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총애를 받을 것입니다.

일 자	전 려 력	미사시간	우리들 정성(지난주)	
9월3일(화)	성 그레고리오 교황 학자 기념일	오후7시30분	교무금 주일헌금	\$ 1,440.00 \$ 1,181.00
9월4일(수)	연중 제22주간 수요일	오전7시30분	미사예물 성소후원	\$ 90.00 \$ 115.00
9월5일(목)	연중 제22주간 목요일	오후7시30분	사회복지 성물방	\$ 205.00 \$ 24.00
9월6일(금)	연중 제22주간 금요일	구역모임	기타수입	\$ 300.00
9월7일(토)	연중 제22주간 토요일	오후7시30분	합 계	\$ 3,355.00
9월8일(일)	연중 제23주일	오전 9시 오전11시	미사참례자	아동: 6명 성인: 164명
교무금 봉헌자	현창균(9-10월)임태운. 안선미. 서희석(7-8월)정용우(1월)엄영자((6월)김은영. 송민자. 김병길. 김형진 김평옥. 박병수. 임상일(8월)김채홍. 남필레. 박재례(9월)			

◎신앙생활(본당의 새신;본당은 친교의 집.기도하는집.동네의 샘입니다)

“천국에는 숫자의 제한이 없습니다.” - 프란치스코교황 연중제21주일 가르침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복음 (루카 13,22-30)은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구원을 위해 돌아가야 할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며, 도시와 마을에서 가르치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에게 다음과 같이 묻는 사람의 질문이 끼어듭니다.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루카 13,23) 이는 당시 논쟁의 소재가 됐던 질문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지, 각자 사용하는 성경에 따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많고 적음의 수량에 주안점을 두는 질문인 “적습니까?” 라는 질문을 뒤집고 현재의 시간을 잘 보내도록 초대하는 책임의 차원에서 대답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루카 13,24)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서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천국에는 “숫자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올바른 길을 지나야 하며, 올바른 길이란 모두를 위한 길이지만 좁은 길이라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어떤 상태인지 말씀하십니다. 길은 좁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길은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요구가 많기 때문에 ‘좁은 문’입니다.

사랑은 항상 요구가 많고, 책임을 필요로 하고, 노력을 요청합니다. 이는 복음에 따라 살아가는 단호하고 끈기 있는 의지입니다. 성 바오로는 이를 ‘믿음을 위한 싸움’ (1티모 6,12)이라 부릅니다.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는 매일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직함을 통해 알아보지 않으십니다. “보십시오. 주님, 저는 그 협회에 속했고 그 몬시뇰, 그 추기경, 그 신부님의 지인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직함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오로지 겸손한 삶, 착한 삶, 행동으로 실천하는 신앙의 삶을 통해서만 우리를 알아보실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당에 다니면서, 성사생활에 다가가서 주님의 말씀으로 길러져 예수님과 함께 참된 친교를 이루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를 신앙 안에서 지켜 주고, 희망을 길러 주며, 사랑을 되살립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느님의 은총과 더불어 우리는 형제들의 유익을 위해 삶을 봉헌하고 온갖 형태의 악과 불의에 맞서 싸울 수 있으며, 싸워야 합니다. 동정 성모마리아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예수님이라는 좁은 문을 거쳐 지나가셨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받아들여셨고, 이해하지 못하셨을 때도 그분의 영혼이 칼에 꿰찔렸을 때도 매일 그분의 삶을 따랐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성모님을 ‘하늘의 문’이라 부르며 기도합니다. “마리아, 하늘의 문이시여. 예수님의 모습을 정확하게 본뜬 문이시여. 하느님 마음의 문, 비록 책임을 많이 요구하시지만 우리 모두에게 열린 마음의 문이시여.”

† 함께 기도해 주세요.

- ◎주님 은총으로 용기와 치유받기를 청합니다. 윤태옥.안나/원정은.카타리나/백정심.막달레나 전기례.베레나/김나미.로사/김옥륜.세실리아 추소연.세실리아/엠안드레아/김숙자.수산나 서향자.글라라/김초지.마리아/최이주.베아타 이규청.제노비아/엠모니카/신용경.그레고리오 배미성.오틸리아/박모란.글라라/원헤리나.헬레나 고공자.벨라뎃다

◎기도부탁하실때 구역장을 통해서 해주세요

◎오늘의 미사지향(미사신청;박율리아.916-990-6531/박프란치스코.909-573-5322)◎

구분	지향	봉헌자	구분	지향	봉헌자
생	이종만.모세의 영육간 건강	이영숙.데레사	생	임혜숙.그라시아, 김정애.헬레나의 영육간 건강	진엘리사
생	장경숙.로사리아의 영육간 건강	이영숙.데레사			
생	임윤정의 영육간 건강	이영숙.데레사	생	김가브리엘라.엄유스티나, 전우성.베드로.전병욱.골롬바 최클라라.오한빛.수산나의 영육간건강	성령기도회
생	장경숙.로사리아의 영육간 건강	정의의모후Pr.			
생	엄유스티나, 이아네스의 영육간건강	아빌라회			

간  
장  
중  
지

◎내 지칠 때◎  
 내가 지칠 때            가까이 오시는  
 아주 지칠 때            더 가까이 오시는  
 견디다 쓰러질 때        받아 안아 주시는 그분

유경환.클레멘스.시인

(광고) 본당의 쇄신;본당은 친교의 집.기도하는 집.동네의 샘입니다.

주보제작;박봉준.프란치스코 살레시오(909- 573-5322) E-Mail:bongjun5322@gmail.com

<p>Samurai Sushi</p> <p>12251 Folsom Blvd. Rancho Cordova,CA95742 신영후(토마스) (916) 353-1112 samuraisushisac.com</p>	<p>Bradshaw Optometry</p> <p>3557 Bradshaw Rd. #2E Sacramento, CA 95827 김기상(바오로) (916)361-2020 (916)361-0433; fax</p>	<p>1.2.3 Auto Body정비</p> <p>11357 Pyrites Way Suite B1, Rancho Cordova CA 95670 이호영(호영베드로) (916)366-0123</p>	<p>좋은 사람들, 좋은 이웃들이 만들어 가는 곳</p>  <p>510-688-0155 베로니카 510-688-0157 레이몬드</p>
<p>FARMERS 배정순 종합보험</p> <p>사업/상해/자동차/집/ 건강/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CA 95827 (916)362-3300 (916)475-3770;cell</p>	<p>에어컨 수리</p> <p>Air Conditioner Service &amp; Repair 배용환(울리아노) (916)548-3278 (916)362-3300</p>	<p>SNOW WHITE DENTAL</p> <p>6416 Tupelo Dr.Cirtus Heights,CA 95621 장원석(바오로) (916)729-1441 (916)230-6768; 한국어</p>	<p>클라라 가정양로원 (Clara Care Home)</p> <p>4665 Freeway Cir. Sacramento, CA 95841 김재열(스테파노) 김옥기(클라라) (530)771-7715 204-8878</p>
<p>서은미 부동산 RealtyOneGroup</p> <p>2335 American River Dr. Ste.100 Sacramento, CA 95825 서은미(안나) (916)600-1936</p>	<p>Hair Story Salon</p> <p>9723 Folsom Blvd. #B Sacramento,CA 95827 헤어디자이너 정린(클라라) (916)342-7072</p>	<p>메리서 부동산 · 용자 · 재정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 및 자문</li> <li>· 주택용자/SBA/Commercial/Land</li> <li>· 은퇴-자산-재무설계/재산관리</li> </ul> <p>서주연(마리아) (916)271-3671 · <a href="mailto:maryseo@gmail.com">maryseo@gmail.com</a> SACRAMENTO . DUBLIN .LA K-TOWN</p>	
<p>최병엽공인회계사</p> <p>Byungyeub Choi CPA &amp; Associates Inc. 9521Folsom Blvd.suit P Sacramento,CA 95827 (Butterfield Plaza#P) 최병엽(바오로) (916)363-2345</p>	<p>장의사</p> <p>W.F.Gormley&amp;Sons Funeral Home Family Owned Since 1897 Preneed Services Available (916)443-6513 <a href="http://www.gormleyandsons.com">www.gormleyandsons.com</a> 모든 장례예절 성실히 봉사</p>		

♥ 새 생명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

성 명: 전노아  
출생일자: 2019년6월 18일생  
가족관계: (부) 전기주.안토니오  
(모) 양지연.이냐시아  
(형) 전재민.미카엘  
구 역: 8구역

윤지영.비오  
윤귀순 (이상 6구역)

●공동체 소식(본당의 쇠신;본당은 친교의 집.기도하는 집.동네의 샘입니다)

1구역(FE).2구역(F0).3구역(PC).4구역(NH).5구역(GF).6구역(RC).7구역(RT).8구역(NC).9구역(EG).10구역(DW)

<말씀안에 하나되는 사랑의 공동체>

1. 리노공소 미사  
일시:22일(일)오후3시.성당에서 출발  
참여단체:꼬미시움.공소미사에 함께해주세요
2. 모임안내  
구역장회의:1일(일)오후1시.엘리사벳방  
사회복지부:1일(일)교중미사후.루가방  
꼬미시움 :15일(일)오후1시.엘리사벳방
3. 봉성체 및 환자방문  
일시:6일(금)오전9시30분.신부님  
박성진.율리아 자매님께 미리 신청해주세요.
4. 성모신심미사 및 성시간  
일시:7일(토)오전10시30분.성당  
미사후 만남회.요셉회가 있습니다.  
(이날 특전미사는 없습니다)
5. 추석 합동위령미사 안내  
일시:8일(일)오전11시.성당  
(미사전 합동연도있으며 미사중 가족분향있음)  
조상님을 위하여 위령미사를 봉헌하실 분들은  
미리 신청해주세요(신청:사무실or전례부장)
6. 본당의 날 행사안내  
일시:8일(일)오후1시.친교실  
미사후 식사나눔과 빙고게임.라플/경품추첨  
노래이어부르기등(개인별 라플2장씩 무료증정)  
한마당 잔치가 되도록 적극 참여해주세요  
도네이션:송돈희(\$300) 감사해요.
7. 레지오 일일피정  
일시:14일(토)산호세성당.성당에서 6:30분출발  
주제:레지오 단원의 성모신심 문의:윤재경
8. 청년회 피정 (문의:최스텔라(카톡;steljchoi)  
일시:21일(토)-22일(일) 장소:Lake Tahoe  
많은 관심과 후원부탁해요.  
도네이션:익명(\$100) 감사해요
9. 본당 골프대회(주일학교 후원위한)  
일시:10월13일(일)오후1시30분(Shotgun)  
장소:Lincoln Hills 참가비:\$85 문의:장현철  
도네이션:김용문(Golf Shoe Bag 8개)  
봉창의(Ping Putter \$200상당) 감사해요

10. 북가주 사제회의  
일시:11일(수)오후6시.새크라멘토 한인성당
11. 무료건강검진(Health Fair)  
일시:10월12일(토)오전8시-오후1시.성당  
문의:김규철.레오(952-836-7117)  
약품구매/행사경비마련위한 도네이션 부탁드립니다  
도네이션:전비아(혈당측정기외)익명(\$100)  
감사해요.
12. St. Mary 천주교공동묘소 한국Section 신청 및  
장례준비절차 상담안내  
문의:고원석.바오로(916-813-4440)
13. 감사합니다  
사제관건축(도네이션):김영숙(\$200)-수정공지
14. 혼배미사 안내  
일시:7일(토)오전10시30분.성당  
신랑:김영훈.필립 신부:김진리.아네스  
김귀태.안셀모 김은영.프란체스카의 장남  
김석민.프란치스코 김경숙.율리에타의 녀  
두분의 혼인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5. 교구 2차헌금;8일(일)모든미사  
목적:Diocesan Collection for Priests Retirement

<주일/한글학교 소식>

- 주일학교 등록 및 접수  
기간:7일(토)까지.미사전후성당 문의:김형일  
주일학교 학부모 연수 안내  
일시:7일(토)성당 문의:김형일  
대상:모든 주일학교 등록학생 학부모님들  
내용:새로 바뀌는 '학부모 주일학교 수업'  
On Fire(Diocese Youth Day) 안내  
일시:14일(토)오전9시-오후9시  
대상:본당 고등학생/청년부 문의:김형일

- 식사봉사(이번주):성령기도회 보조:신부님  
식사봉사(다음주):여성회(추석/본당의날)
- 먼저인사해요(주보봉사및인사나누기);5-6구역
- 예빈신자 교리반:매주목요일 오후8시.데레사방

화답송



하느님 당신은 가련한이들위하여 은혜로이 집을 마련하셨 나이다

전례봉사	연중 제22주일(9월1일)	연중 제23주일(9월8일)	연중 제24주일(9월15일)	연중 제25주일(9월22일)
해설	정미정.루시아	김은영.폴리나	오민정.크리스티나	최금주.요안나
제1독서	이재덕.스테파노	김도철.베드로	구준모.요한	최범진.아브라함
제2독서	이은희.요세피나	김진영.말따	김준희.키아라	박명혜.엘리사벳
복사	최진호.이상인	최준우.장현철	김규철.윤여훈	허호영.박성호
봉헌/기도/청소	5-6구역	5-6구역	5-6구역	5-6구역
헌금위원	고원석.윤재경.안강순	안병훈.박수옥.정의주	이영숙.임혜숙.이경희	전비아.류정임.나송희